



육계자조금 시행은 닭고기 소비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 2006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AI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기 모이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또한 AI극복 캠페인 전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AI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는 이제 우리가 종사하고 영위하는 육계산업을 한 순간에 피폐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일 언론에서는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 역시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면 언론의 포화는 우리를 겨냥, 날아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 몫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올 한해 우리 계육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 쉽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2006년은 그 어느해 보다 많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닭고기 소비량이 쇠고기를 앞질러 축산물 소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닭고기가 타 어느 육류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우리들의 노력이 적으나마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화이트미트의 우수성을 더 많이 소비자에게 주시시켜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 경향은 젊을수록 닭고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50대 보다는 40대가, 20대 보다는 10대가 닭

고기 소비의 주 고객층이라는 것입니다.

손쉽게 프랜차이즈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닭고기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 등이 주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웰빙 등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이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닭고기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뿌리깊게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닭고기 소비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소비량에서 두 배가 넘는 돼지고기 시장의 공략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 의무자조금 대의원 창립총회를 가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아깝게 유회되기는 했지만 우리업계의 활로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 한해 회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포장유통의무화입니다. 정책당국의 일정상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의외의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업계는 DDA(다자간협상),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닭고기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닭고기 시장은 상당부분 개방돼 있는 상태로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외국산 수입육이 우리의 닭고기 시장을 순차적으로 잠식해 나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것 중의 하나가 포장유통의무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장유통을 통해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고 수입 닭고기와 차별화를 통해 우리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계육업계의 올 한해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1997년 IMF도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불황, 2003년 AI 파동에 이어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닭고기 산업이 천직이라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이겨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 것이 지금의 계육산업을 유지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생각이 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업계에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가 퇴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계육산업의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뜻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육업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올 한해도 가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2월 22일

(사)한국계육협회 회장 한형석

